

News

국토차관 "파주·김포 집값 불안하면 내달 조정대상지역 지정"

연합뉴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

금융당국, 이달 말 15개 銀·8개 銀지주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 조기 시행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이달 말부터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사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 조기 시행...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입은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 공급 늘리기 위한 조치 은행별로 살펴보면 이달 말 광주·전북은행, 오는 9월 말에는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이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

'짜깁깁' 6개월 미뤄진 빚폭탄...부실 방어쇠 당기나

이데일리

금융권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6월 만기가 돌아온 대출 48조원을 6개월 연장...약 581억원 규모의 이자도 유예된 상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일률적 지원을 계속 떠안고 가기도 어렵다는 게 딜레마...코로나가 연내 종식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무리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100% 배상안 나올듯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주 라임 사태 본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등을 적용 부당이득 반환 차원에서 피해자에 최대 100% 돌려주라는 권고안 나올 것으로 전망 관계자, "은행도 사기 당한 피해자인데 납득할 증거를 제시 못하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향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전년比 7% 증가...의원·한방병원 급증

파이낸셜뉴스

5대 손보사가 올해 5월까지 지급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2조9318억원으로 지난해 5월 누계 지급보험금 2조7365억원 대비 7.14%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의원급,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외래 진료 청구가 높아...한방병원의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22.45%

초저금리에...엄격했던 '킵스' 칼날, 무뎠나

서울경제

최근 금융당국이 킵스 최종안을 공개한 가운데 당국이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자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한화생명이가가사로 규제 기준(100%)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 이는 앞서 진행한 1·2차 계약양형평가 당시 기준 대비 '계약의 경계' '위험마진' 등의 주요 항목을 크게 완화한 결과...보험사들 사이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이중과세 논란 거래세 폐지해야...금융세계 입법 최대쟁점

연합뉴스

유동수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 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으로, 양도세 전면 확대 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SK바이오팜 잡으려? ... 청약 마지막 날 CMA 10조 뺐다

국민일보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증권사 CMA 잔액은 전날 56조9,936억원에서 46조8517억원으로 10조1,419억원 줄어...연초 이후 CMA 잔액 첫 40조원대로...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를 새로 쓴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 시기에 국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이 10조원이나 급감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